

‘전주시 지방채 발행’ 양날의 검으로 등장

우범기 시장, ‘건전한 빛’...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



전주시 재정 양날의 검으로 평가되고 있는 지방채 발행 관련, 우려의 목소리와 건전한 빛이 나타나고 있다. 양날의 검으로 평가되고 있는 지방채 발행 관련, 우려의 목소리와 건전한 빛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예산과 세수확보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하면 된다는 복안을 내놓고 있다. 이는 덕진공원을 비롯한 공영지구 일몰제로 인한 필요자금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해서 미래를 방치할 수 없을 뿐더러 빛내서 매입하고 중앙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전한 투자’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우 시장은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자 공공요금 현실화와 지방채 체납액 징수 강화,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유사·중복사업 전면 재검토, 민간투자 활성화로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6월 현재까지 전주시 재정자립도를 보면 2016년 30.4%에서 지난해 21.7%로 떨어졌다. 그동안 전주시 예산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온 최용철 시의원은 “대규모 필수 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세입은 줄고 무분별한 세출이 계속된다면 전주시의 재정 파탄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동안 전주시 예산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온 최용철 시의원은 “대규모 필수 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세입은 줄고 무분별한 세출이 계속된다면 전주시의 재정 파탄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권희성 기자

우범기 시장은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난 우려와 관련, 26일 우범기 전주시장(사진)이 전주시청 3층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까지 누적된 지방채 발행을 일몰제로 인한 토지수용 등에 들어간 건전한 빛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채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보면 공영과 도로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2천800억원, 실내체육관·육상경기장·야구장 건립 등 인프라 구축 1천170억원, 독립영화의집·서부권복합복지관·승화원 및 봉안당 건립 등 민선 7기 사업 2천억원 등이다. 따라서 우 시장은 이렇게 누적된 지방채가 ‘건전한 빛’이라고 역설하고

전주시, ‘제21대 대통령 지역공약 대응 보고회’ 개최... 우범기 시장,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 주문

이재명 정부 공약이나 정책과 맞물려 전주시가 민생회복을 위한 각종 사항 및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한 가운데 향후 이행될지 여부에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새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추경 편성에 대응해 전주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촉진에 집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민생경제 TF팀도 가동하기로 했다.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우범기 시장 주재로 ‘제21대 대통령 지역공약 대응 보고회’를 열고,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기존에 발맞춘 공약별 실행 전략과 재원 확보 방안, 민생안정 새정부 추경 대응 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와 함께 시는 새정부 출범에 맞춰 대통령의 지역공약 이행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보고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주지역 7대 공약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 및 정치권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의 동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대통령의 지역공약을 새 정부의 3대 비전(회복·성장·행복) 및 15대 정책과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집중 분석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전주지역 공약



전주시는 26일 우범기 전주시장 주재로 ‘제21대 대통령 지역공약 대응 보고회’를 열고,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기존에 발맞춘 공약별 실행 전략과 재원 확보 방안, 민생안정 새정부 추경 대응 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대부분이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 △국가균형발전 △성장 기반 구축 등 새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만큼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사업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대통령의 전주지역 7대 공약은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기반 시설 조성 지원 △K-영화·영상 산업 거점 조성 지원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 개발 지원(모두에슬콤플렉스·특화도서관 건립) △국립전주박물관 일원 전주 K-헤리티지 복합문화단지 조성 지원 △피지컬 AI특화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 지원 △노후화된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및 현대화사업 추진 지원 등이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공약인 △차세대 산업을 중심의 금융특화도시 조성 △사물인터넷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호남공약으로 발표된 △전주의 한식과 후백제 유산의 세계적 문화유산 육성 등에 대해서도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의 추경 편성에 대응해 향후 시민들에게 지급될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동시에 시는 소비쿠폰 지급과 발맞춰 전주사랑상품권의 소비자 활용을 확대하고, 기업·시민·기관·소상공인이 함께하는 민생살리기 범시민운동인 ‘전주 함께장터 프로젝트’도 지속 전개하기로 했다.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 만들기 공동선언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열고 안건 심의

전주지역 노·사·민·정이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와 임금 체불 없는 공정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주시노사민정협의회는 26일 앰배서더 3층에서 ‘2025년 상반기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열고, 노동 존중 도시 실현과 지역산업단지 노동자 복지 향상을 위한 안건을 심의했다.

지난 2015년 8월 출범한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단체와 경영자단체, 민간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 대표자 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주시노사민정협의회는 26일 ‘2025년 상반기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열고, 노동 존중 도시 실현과 지역산업단지 노동자 복지 향상을 위한 안건을 심의했다.

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노사관계 안정 및 지역 고용·노동 현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사업계획 △노사민정협의회 조직 개편 및 신규위원 위촉 계

획 △산단 노동자 아침식사 지원사업 추진계획 등 3건의 안건이 상정돼 원안 의결됐다.

특히 한국노총 전주시 지역지부와 팔복공단노조협의회, 전주상공회의소,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고용노동부,

전주시 등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이날 발표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에는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

이들은 또 각 주체가 산업재해 제로 실천과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실질적 실천 등을 함께 다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황정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을 비롯해 한국노총과 여성경제인협회, 산단협의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쥬워드 등 다양한 신규 위원들이 위촉돼 협의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기도 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본회의 이후에는 ‘전주시 노동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진행했다.

현장 노동자와 노무 전문가, 학계 및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주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오갔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찾아가는 함께존중 캠페인’ 전개

전주시는 26일 시청 1층 로비에서 직장 내 인권 감수성 향상과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함께존중 캠페인’을 전개했다.

‘찾아가는 함께존중 캠페인’은 시가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 중인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인권 감수성 향상, 실천 중심의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날 캠페인은 직원들이 출근길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됐으며, 우범기 전주시장도 직접 캠페인에 참여해 직원들과 함께 상호 존중의



전주시는 26일 시청 1층 로비에서 직장 내 인권 감수성 향상과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함께존중 캠페인’을 전개했다.

의미를 되새기고 일상 속 실천 방법을 공유하며 존중 문화 확산을 도모했다. 특히 말을 끝까지 경청하기, 기본이 태도가 되지 않기, 존중의 시작은 호칭부터 등 존중 실천 방법에 대해 직원들이 공감하는 항목에 스티커를 부착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전윤미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원안 가결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전윤미 의원(호서2·3·4동·사진)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열린 제42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는 몸과 마음의 건강과 치유, 회복을 중심으로 한 ‘웰니스 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웰니스 관광의 정의 및 육성 목적 △시장 책무 △실행계획 및 실행조사 △위탁 및 재정 지원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윤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시가 치유와 회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건강한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고유의 자원을 적극 활용해 웰니스 관광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전윤미 의원(호서2·3·4동·사진)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열린 제42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는 몸과 마음의 건강과 치유, 회복을 중심으로 한 ‘웰니스 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지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